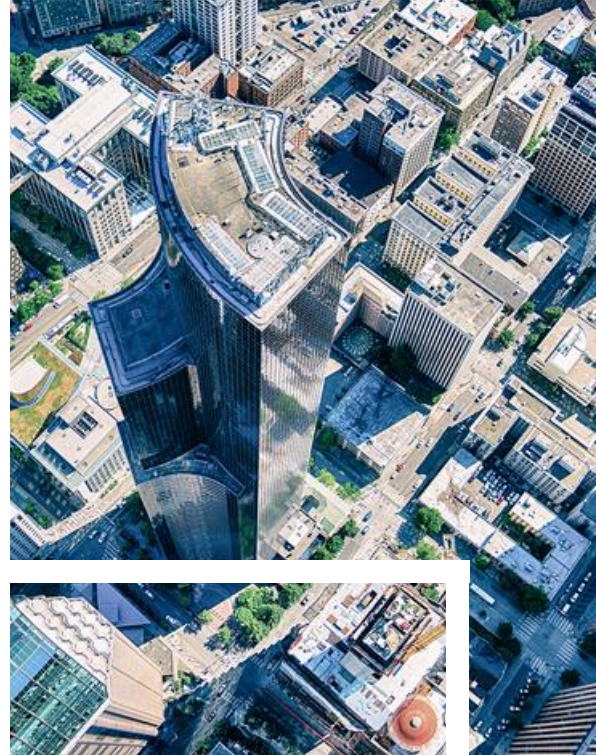


Samil Global Tax Update

January 2021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이탈리아	Digital Service Tax 집행기준안
영국	Post-Brexit VAT 규정
호주	즉시 상각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아일랜드	Finance bill 2020: 국제조세 조항 개정
우크라이나	국제조세 관련 개정세법



삼일회계법인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DST (Digital Service Tax) 과세를 위하여 집행기준안을 2020년 12월 중 공표하여 DST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 2020 년 DST (Digital Service Tax) 신고 납부 Compliance

이탈리아는 2020년부터 DST를 시행하였고, 2020년 이탈리아 내 DST 매출이 EUR 5.5M(약 70억)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3%를 2021년 2월 16일까지 납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 수행이 필요함

(*) Global 매출 기준 EUR 7.5억 유로 초과도 적용 필요

• Digital Service Revenues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DST는 사용자가 이탈리아 내에 소재할 때 발생하며, 사용자의 소재지는 사용자의 Device 의 IP 또는 지리적 위치로 판단함

이번 집행기준안에서는 DST대상 서비스와 아닌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였음

(1) DST 대상 서비스

1. 디지털인터페이스상 채널링을 통하여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광고(Targeted Digital Advertising)
2. 다자간 디지털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간 연락 및 교류를 제공하는 플랫폼 (Social Network or Intermediation Functions)
3. 다자간 디지털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간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Marketplace (예: Digital Intermediation Service))

4. 사용자에게 대한 Data와 디지털인터페이스 사용으로 발생한 Data의 제공 (Sale of User's Data)

(2) DST 대상이 아닌 서비스

- a. 디지털 중개 서비스 성격의 직접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 b. 공급자가 중개 기능이 없을 때 공급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주문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 c. 사용자에게 콘텐츠 제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결제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디지털인터페이스의 공급
- d. 파이낸셜 비즈니스 성격의 디지털서비스
- e. 전기, 가스, 연료 공급 등

• 주요 용어 정의

DST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함

- 디지털인터페이스 (EU 제안과 유사) : 웹사이트와 그 일부, 사용자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자에게 접근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어떠한 소프트웨어
- 다자간 인터페이스: 웹사이트와 그 일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고 재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접근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어떠한 소프트웨어

- 사용자 : 디바이스를 통하여 디지털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디지털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자
- 채널링: 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로서 제3의 웹사이트로 트랜스퍼하거나 또는 Target한 광고를 보여주는 서비스

• PwC Observation

- 이탈리아는 약 10개국의 EU가 공동으로 DST에 대응하기로 한 과세 Threshold 방침보다 Local 기준 DST 과세 Threshold (EU기준: EUR 50M, 이탈리아: EUR 5.5M) 가 더 낮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탈리아 내 관련 소득이 존재하는 한국기업은 적용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외 DST를 새롭게 도입하는 신규 국가들은 Threshold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DST 도입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영국

• 영국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개정 부가가치세법 발효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됨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였음

-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전자상거래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 관련 변경 사항은 하단과 같음

(1) 15파운드 이하 상품에 대한 수입부가치세 면제 제도 폐지

- 그동안 적용되었던 15파운드 이하 상품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LVCR: Low Value Consignment Relief)는 폐지됨
- 해당 면제제도는 영국 과세당국 ("HMRC")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품을 낮은 가치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비중 및 이에 따른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2) 135파운드 이하 상품은 판매 시점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 판매 상품의 총 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품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되어 판매자는 더 이상 영국 세관에서 해당 수입품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구매자에게 별도의 청구서로 정산할 수 없음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 대신 온라인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영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하여 등록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모든 조건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영국 세관에 의하여 배송이 중단됨
- 한편 135 파운드를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 받게 되므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세관절차 진행 또는 운송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공급자로 간주

- 개정된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거래를 촉진하는 대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공급자로 간주됨
 -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가 판매 약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 해당 판매거래에 관련하여 마켓플레이스가 상품을 주문하거나 이행할 책임이 있음; 또는,
 -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상품의 구매자를 기준으로 대금 지급함
- 판매약관 준수 요건으로 인하여 공급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많은 소매 업체는 제3자 판매자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약관에 따라 허용하므로,

제3자 판매자가 공급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 적용됨

(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

- 해당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자가 제공한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기재한 것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모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책임 여부가 발생함
- 추가로 마켓플레이스는 최소 6년동안 모든 거래가 기록된 전자 기록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

• PwC Observation

- Brexit 이행 기간 종료 후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액 물품에 대한 수입부가세 면제가 폐지된 점을 포함하여 영국의 VAT 관련 온라인사업자 및 판매자에게 신고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영국과 전자상거래를 하는 EU지역의 한국 자회사를 둔 한국기업들은 개정된 VAT법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U 탈퇴 이후 Tax 관련 Compliance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호주

• 호주세법상 즉시상각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0-21 사업연도 호주 연방예산국(Federal Budget)에 따르면 호주 내 투자 촉진 및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목적상 즉시상각(immediate write-off)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다국적기업이 호주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 년 10 월 최종 확정된 연방예산은 법소정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단, 하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득요건: 호주세법상 과세소득이 AUD 50 억(약 KRW 4 조¹) 미만에 해당
 - 투자요건: 2016-17 에서 2018-19 사업연도 중 2 개년에 걸쳐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에 AUD 1 억(약 KRW 800 억¹)을 초과하여 투자
- 기존 요건이 매출액(turnover) AUD 50 억(약 KRW 4 조¹)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은 대폭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상 도입된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매출액요건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것도 가능함

- 또한 회사는 자본적 지출 전체가 아닌 자산별로(on an asset-by-asset basis) 즉시상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은 전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즉시상각이 특수한 경우에 세무목적상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예를 들어 이월이 불가능한 세액공제액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소득요건

기존 매출액요건이 다국적기업집단의 글로벌 매출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면, 완화된 소득요건은 호주 국내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과세소득은 2018-19 및 2019-20 사업연도의 경상소득 및 법정소득(ordinary and statutory income)으로 함
- 기존의 매출액요건이 (합작투자를 비롯한) 관계회사의 모든 매출액을 합산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집단은 기존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 새로운 소득요건이 호주 국내의 과세소득을 판정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을 영위하지만 호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던 다국적 기업집단도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기존 매출액요건의 대상은 “경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상소득(ordinary

¹ 약 800 KRW/AUD 가정함

income)”이지만 이번 호주 세무당국의 보도자료는 소득요건의 대상을 “경상소득 및 법정소득(ordinary income and statutory income)”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언급에 소득요건 판정 시 대상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호주 세무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만일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자본이득 또는 비경상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회사의 경우 해당 표현에 근거하여 특례적용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2. 투자요건

동 투자요건은 호주 내 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장치로 판단되며, 2016-17에서 2018-19사업연도 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에 AUD 1억(약 KRW 800억¹)을 초과하여 투자하였을 것을 요구함

- 해당 요건은 호주 내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회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PwC Observation

- 글로벌 매출이 크고 호주의 사업 비중이 작았던 한국기업의 경우, 소득 요건 완화에 따라 즉시상각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호주 내 유형자산의 신규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동 즉시 상각에 대한 혜택 효과를 검토하여 투자 요건

충족을 위한 투자 Schedule에 점검이 필요함

아일랜드

• Finance bill 2020 에 따른 국제조세 조항 개정

아일랜드 재무부가 2020년 10월에 공표한 재정법 2020(Finance bill 2020)에 따르면, 특정 무형자산의 상각 및 이전가격 규정, CFC 규정 등 국제조세와 관련된 규정 등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

(1) 특정 무형자산 상각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5 년 이상 보유한 특정 무형자산의 경우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2020 년 10 월 14 일 이후 처분되는 무형자산은 처분의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처분이익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

(2) 이전 가격 규정

재정법 2019 (Finance act 2019)은 아일랜드의 이전 가격 규정 적용 대상을 다국적 비무역 거래에도 확장하면서, 특정 국내 비무역 거래는 이전 가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국내거래 이전가격 배제 규정). 재정법 2020 은 국내거래 이전가격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적격관계자’가 아일랜드 내에서 과세소득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금전대차거래 당사자 역시 ‘적격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계약 결과로 과세소득이 실제로 발생해야 함을 제시하였음

(3)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

기존의 재정부 2019 는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에 맞추어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을 제정하였음.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은 기업이 Hybrid entity 및 Hybrid 금융 기업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의 차이에 따라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재정부 2020 은 해당 규정이 BEPS action 2 report 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Hybrid 기업의 경제적 불일치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몇 가지 개정사항을 추가하였음. 해당 규정은 경제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손금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며, Revenue's existing published guidance 가 법의 일부로 성문화되도록 하였음. 또한 금전거래 수익자의 주주 또는 모회사가 면세기업일 경우 해당 금전거래가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제시하였음. 여전히 많은 경우 관계기업간 경제적 불일치에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이 적용되지만, 재정부 2020 은 현행법상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및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준수사항에 따라 관계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4) CFC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TAD 시행 규칙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9 년 1 월부터 CFC 규정을 도입하였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일부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아일랜드 기업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됨. 재정부 2020 은 EU list Annex 1 에 따른 조세 비협조 국가의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CFC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

(5) Knowledge development box (KDB)

아일랜드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자산(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및 특허권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6.25%의 세율 특례를 제공함. 재정부 2020 에 따라 해당 특례 규정은 2 년 연장되어 2022 년 12 월 31 일 종료됨

(6) EU 의무 공시 사항 (DAC6)

재정부 2020 은 DAC6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타 국가에서 중개법인(Intermediary)으로 신고한 법인은 과세 신고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적격납세자의 면제 요건을 확대하였음

재정부 2020 은 Hallmark A3 (표준 문서화 및 구조화 관련 규정) 면제에 관한 많은 개정안을 담고있음

(7) 부가가치세

Covid-19 으로 인해 호텔숙박업이 얻은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 년 12 월 21 일까지 해당 업종의 부가세율이 13.5%에서 9%로 완화됨

• PwC Observation

-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는 상기 개정 규정의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적용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

•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세제 개정세법 발효

우크라이나는 주로 BEPS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세법 제466조(Law 466)를 제정하여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세제를 대폭 개정하였음

- 제466조(Law 466)의 많은 조항들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해당 법률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 해당 법률의 발효는 우크라이나 내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1) 특정외국법인 소득 합산과세 (CFC Rules)

우크라이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소득 일부에 대하여 동 법인 또는 개인의 세율로 합산하여 과세함

- 세무상 우크라이나 거주자 또는 우크라이나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우크라이나 거주자가 통제(control)하는 경우 CFC 규정의 특정외국법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함
 - 통제(control) 요건: 외국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10% (2022년까지는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며 다른 우크라이나 거주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개정세법 제 466 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 및 일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CFC 규정면제를 위한 특정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22년에 제출하여야 하는 2021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부터 적용됨

(2)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배제

- 우크라이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 목적 테스트(PPT)를 적용하여 거래의 주된 목적이 직간접적으로 세원잠식일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함
- 또한 개정세법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하단의 경우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취급되도록 함
 - 해당 소득을 사용하고 처분할 충분한 권한이 없는 경우
 - 소득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 명목상으로만 수익자일 경우
- 해당 규정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적용되었음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020년 7월 1일부로 비거주자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내 법인의 주식 등의 권리를 50% 이상 양도하거나,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함

- 2020년 8월 8일부로 비거주자가 직접적으로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함

(4) 간주배당 범위 확대

- 배당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 하단 거래에 대해서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됨
 - 비금전적 형태의 배당 (ex. 현물배당 등)
 - 우크라이나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며 우크라이나 회사의 주주이거나 설립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거래
 - 비거주자인 관계사 또는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에게 상품 또는 권리에 대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거래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위 거래를 포함하여 간주배당으로 간주될 경우 조세조약을 통해 적법하게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됨

(5)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 기준 마련

- 2021년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관리장소(PoEM,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거주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법인세법을 적용 받게 됨
- 주로 하단의 경우 우크라이나 내 실질적 관리 장소(PoEM)가 있는 것으로 취급함

- 외국법인의 은행계좌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통제되는 경우
- 재무 또는 관리회계 업무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 인사관리 업무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6) 과소자본세제 규정 개정

- 개정세법 제466조로 우크라이나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가 개정되어, 관계사 비거주자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의 부채를 계산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세무조정사항 등 기타 세부적인 규정 또한 바뀌었음
- 또한, 리스업만 수행하는 금융 기관 및 회사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배제함

• PwC Observation

- BEPS 권고안을 법제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인 세무환경 변동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세제가 국제 기준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상세한 적용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과 함께 현지 Practice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Global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도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서비스세라니?
- 이탈리아 DST 집행기준안

<https://www.youtube.com/watch?v=ZHUy6-d5I90>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